

공공가정론의 철학적 제문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Philosophical Issues in Institutional Household Study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조교수 김난도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Ran do, Kim

〈목 차〉

- | | |
|--------------------|----------------|
| I. 서론 | II. 철학적 이슈의 개관 |
| III. 공공가정론의 철학적 이슈 | IV. 결론 |

〈Abstract〉

This paper delves into philosophical aspects of institutional household(IH) study. The paper argues that it is also necessary to investigate theoretical, methodological, and philosophical issues, not only prescriptive, practical, and managerial ones, in order to establish a field of study as an independent area of academic discipline. In that sense, the paper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cience of IH” as well as the growth of knowledge in that field.

For philosophical discussions, the paper first reviews overall sub-fields of philosophy of science such as ontology, epistemology, methodology, and the debate on human nature. Then, it focuses on philosophical issues relating to the nature of IH including (1) the substance of institutional household as scientific investigation, (2) the epistemological basis of IH study, (3) the possibility of normal methodology in studying IH, (4) the values that IH ought to pursue, and (5) the rationale and autonomy of IH study.

In the conclusion section, the paper discusses why the study on philosophical aspects in IH is critical in the academic community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 본 논문은 1998학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부속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1998년 2월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Workshop에서 발표된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유익하고도 애정어린 논평으로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익명의 사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I. 서 론

가정적 기능을 지향하는 공공적 조직체¹⁾인 공공가정은 현대 사회의 필연적인 산물이다.²⁾ 공공가정에 대한 학문적·지적 탐구인 「공공가정론」 역시 이제 발아기에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요구라는 측면에서나 이론적 논의의 풍성함이라는 측면에서나 독립된 학문분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학문분과가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실천적 지식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실천적 지식의 근거가 되는 이론적 배경, 그리고 이에 선행하는 철학적 측면의 제논의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조화롭게 발전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공가정론의 지적 성장을 위해서는 ① 어떻게 공공가정을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처방적(prescriptive) 측면, ② 어떻게 공공가정을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과학적(theoretical) 측면, 그리고 ③ 이러한 이론적·실천적 논의를 가능케하는 본질과 근원에 관한 철학적(philosophical) 측면에 관한 논의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공가정에 관한 처방적/관리적 차원의 연구 내지는 과학적/이론적 차원의 연구는 그 논의의 성과물을 축적하고 있는 반면(김선희, 1997; 송혜림, 1995; 송혜림, 1997a; 이기영·문숙재·송혜림(역), 1996; 조희금, 1997a; 조희금, 1997b 등을 참고), 철학적 차원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왜소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공공가정론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술한 세가지 차원중에서 마지막 논의인 「공공가정론의 철학」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철학의 가장 중요한 갈래는 우선 관찰가능한 사물을 넘어서는 궁극적 실재(substance)의 본질 및 그것을 바라보는 포괄적 세계관에 관한 논의인 「형이상학(metaphysics)」과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며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가치판단적 논의인 「윤리학(ethics)」의 두 분야이다. 형이상학의 이슈는 다시 정적(靜的)인 사물의 본질에 관한 존재론(ontology)과 동적(動的)인 측면에서 변화하는 전체로서의 세계상을 기술하려는 동태학(kineology)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존재론의 논의는 그 논의가 체계적·과학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인식론(epistemology), 방법론(methodology) 등의 논의와 연결된다(글로셉, 1986tr.).

이 글에서 이러한 각각의 철학적 갈래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공가정론의 문의에 관한 포괄적인 해답을 제시할 여유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문제제기와 향후 연구의 준거를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을 포괄하는 형이상학적 이슈와, 가치론의 논의를 주로 다루는 윤리학적 이슈의 양대 측면에서 간략히 공공가정론과 관련되는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각각의 이슈가 따로따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물론 아니다. 이들은 모두 상호간 매우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그 질문조차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럼에도

1) 공공가정의 이러한 개념정의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하위개념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가정적 기능」이란 “부양활동, 양육활동 및 교육활동, 즉 넓은 범주에서의 가사노동을 통하여 가족원의 생존적·관계적·성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말하며, 둘째 「지향」의 의미는 전술한 가정기능을 “지지·보충·대체”하는 경우를 지칭한다(송혜림, 1994). 셋째, 「공공적」이라는 것은 우선 전체적 측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추구의 목적을 가진 법인체에 의하여 설립되는 것을 의미하며 내용적 측면에서 제한된 이윤추구행위, 즉 창출된 이윤을 조직의 소유·관리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가정의 본래적 기능수행을 위해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송혜림, 1997b 참고). 마지막으로 「조직체」라고 함은 공공가정이 하나의 목표·구성원·구조화된 역할·자원·환경을 가지는 조직으로서 존재함을 의미한다. 좀더 상세한 설명은 김난도(1998) 참고.

2) 공공가정이 현대 사회의 필연적인 요구의 산물이라는 점은 첫째로는 생산기술의 질적 향상 및 양적 증대, 그리고 그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맥락, 둘째 이유로서 복지국가론의 이념적 대두에 따른 이념적 맥락, 셋째 가정관리학의 현실적응성을 높이고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며 전공자들의 경력개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학문적·교육적 맥락 등 세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분리하여 기술하는 것은 다만 이해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가정론의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철학적 질문들은 매우 다양하다. “과학적 연구대상으로서 공공가정(론)의 본질은 무엇인가,” “공공가정이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어떠한 근거에서 공공가정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공공가정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여야)하며 그러한 가치를 결정하는 근거와 질차는 무엇인가,” “공공가정(론)의 이해를 위한 표준 과학적 방법은 존재하는가,” “공공가정론을 인접과학과 구별하는 방법론적·실체적 독자성은 존재하는가” 등등의 문의를 그러한 몇가지 예이다. 우리가 공공가정의 철학을 논의하는 이유는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보다 진지한 해답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일반적인 학문활동을 위하여 어떠한 철학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가에 관한 개관적 논의를 우선 살펴 본 후, 그러한 이슈별로 공공가정론에 적용될 수 있는 철학적 의문의 몇가지를 예로 제기하고 그에 대한 예시적이고 잠정적인 답변을 시도해 보고, 결론을 맺도록 한다.

II. 철학적 이슈의 개관

1. 존재론

전술한 바와 같이 어느 주어진 시점에서 우리가 관찰가능한 사물을 넘어서는 궁극적 실재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관한 탐구인 형이상학적 이슈가 존재론의 논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존재론과 관련한 궁극적 질문은 우선, 사물의 실재(substance)는 물질적인가 정신적인가, 그리고 실재는 원자적인가 전체적인가 하는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글로썬, 1986tr.: 45-61).

이러한 궁극적 질문 중에서 첫번째 질문에 관한 철학적 견해를 살펴보면 우선 사물의 본질은 물질적인 것이라고 보는 견해를 유물론(materialism), 정신적인 것이라고 보는 견해를 관념론(idealism), 실재는

물질과 정신의 두가지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를 이원론(dualism)이라고 부른다. 유물론의 전통은 멀리 데모클레이토스나 에피쿠로스에서부터 비롯하여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그 이론적 만개(滿開)를 보았으며, 관념론의 주된 근거는 버클리나 헤겔의 철학에서 그 대표적 예를 찾을 수 있다. 이원론적 견해는 데카르트의 입장이 대표적이며, 여기에서 발전한 것이 스피노자나 러셀의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은 소위 중립적 일원론(neutral monism)이다.

둘째로, 실재의 원자적 성격에 관한 존재론적 논의는 후술하게 될 방법론적 환원가능성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문제이다. 우리가 어떠한 실재를 파악할 때 그것은 하나의 통일되고 전일적인 전체(whole)로서 파악할 것인가, 또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part)으로 나누어 분석한 후 그 부분의 합으로서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학철학의 오랜 논쟁의 하나였다. 사물의 고유한 성질을 보유하는 최소단위를 분자(分子)라고 부르고 이러한 원소들의 고유한 성질과 결합방식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적 전통에 따라 이루어지는 많은 실증적 사회과학들이 이러한 원자론적 전통에 입각하고 있으며, 반면 체계이론(systems theory)과 같이 하나의 전체로서의 체계가 어떻게 자체적인 안정을 이루어가느냐를 탐색하는 이론적 논의들은 전체론적인 사고의 틀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방법론적 함의는 후술하도록 한다.

2. 인식론

우리가 공공가정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여 하나의 과학으로 발전시키려면 진리에 관한 인식(cognition)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진리에 관한 인식을 전제할 때에만 「지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떠한 근거에서 인식작용이 지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인식론(epistemology)이라고 한다(정위섭, 1992: 85-89). “지식을 가능케하는 인식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관하여 감각과 이성은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원천으로 간주되어 왔다. 인식에 있어서 이성

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을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합리론이라고 부르고, 감각 또는 경험을 중시하는 입장을 로크를 비롯한 경험론이라고 부른다(엥겔, 1992tr.: 330).

경험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회과학의 실증주의(positivism)적 연구방법은 오늘날 사회과학의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다. 최근까지의 사회과학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행태주의(behavioralism)의 인식론적 기반인 실증주의는 사회과학에서 가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측정가능한 사실들만을 인식의 기초로 삼아, 자연과학과 같은 방법론적 엄격성에 입각하여 이론을 개발하고 많은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시도로 이해되고 있다(Bernstein, 1976). 이처럼 실증적 인식론은 인간의 행태와 사회현상을 객관적 자료로서 일반화하고 과학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진리탐구라는 작업이 가설의 검증가능성을 밝히는 작업으로 치환됨으로써 측정이 불가능하고 경험적 실재를 넘어서는 현상에 관한 탐색이 무시되는 한계를 노정함으로써 크고 작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합리론적 인식론의 전통에 기반을 둔 연구방법론으로서 소위 비판적 방법을 들 수 있다. 하버마스 등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중심으로 한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은 경험가능한 현상과 역사의 표면을 넘어 비판적 성찰을 통해 ① 허위의식을 타파하고, ② 사회적 위기의 본질을 밝히며, ③ 부단한 교육과 계몽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④ 인간의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praxis)을 학문적 목표로 하고 있다(Fay, 1987: 31-32). 이러한 비판이론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구조·기능분석 위주의 주류 사회과학에 관한 비판적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안석교, 1984).

실증적·비판적 방법과 더불어 주목할만한 연구방법으로 해석적 방법을 들 수 있다. 현상학(Phenomenology)으로 대표되는 해석적(interpretive) 방법론은 인식의 기초를 단순히 경험이나 이성에 양분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감각·감정·사고에 공히 기반을 두고 인간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Verstehen)하려는 것이다. 귀납·연역에 의존하는 실증적 방법과는 달리 기술(description)과 해석(interpretation)에 의

존하여 서로 공유된 주관—소위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통해 실증주의적 객관성에 갈음한다. 이러한 해석적 방법은 실증주의가 간과하기 쉬운 「인간」이라는 요소에 감정을 이입하고 주관적 이해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보다 적절한 해결방법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구조주의, 기호학, 해체철학 등과 같은 근대 이후(post-modern)의 많은 접근방법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앞으로 많은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공공가정에 대한 그러한 새로운 인식론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3. 방법론

전술한 인식론의 논의와 구별되는 좁은 의미에서의 방법론에 관한 과제들은 “사회현상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체의 합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전일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인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간에 통합적용될 수 있는 표준과학적 방법론은 존재하는가,” “과학적 지식은 누적적으로 진보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다 진보된 그것으로 대체되는 것인가,” “사회과학 또는 특정한 과학의 분과(예컨대 공공가정론)는 자연과학 또는 인접학문분과와 구별되는 방법론적 특성을 지니는가,” “과학적 설명의 논리구조는 어떠한 형식을 가지는가” 등등의 이슈를 포괄한다.

특히 첫째의 질문, 즉 전체를 전체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구성요소인 개체의 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가에 관해 오랜 논란이 존재한다. 사회과학을 자연과학적 방법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실재론적 존재론,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바탕을 둔 입장에서는 궁극적인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는 개체에 있으며 어떠한 실재도 이러한 개체로의 환원(reduction)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를 방법론적 개체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라고 하며 현재 경험론에 바탕을 둔 실증주의의 주류적 방법론이다. 이에 반하여 이러한 방법론적 환원으로는 전체적 속성을 파악할 수 없으며 단순한

개체의 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속성이 발견(emerging)하므로, 전체를 전일적으로 탐색하여야 한다는 방법론적 입장을 형이상학적 비환원주의(meta-physical holism)라고 한다(강신태, 1995: 125-134).

이 외에도 두번째 질문은 쿤이 말하는 소위 패러다임(paradigm)론이 과학적 지식의 진보를 설명하는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지식의 성장에 관한 논의이고(신중섭, 1992), 과학적 설명의 논리구조는 사회과학의 이론이 갖는 논리진개의 문법을 밝히려는 노력이다. 현재 실증적인 주류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아 ① 연역-귀납논리에 의거한 공리적(axiomatic) 형식, ② 사물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춘 인과적(causal) 형식, ③ 생물학에 기초를 둔 분류론적(typological) 형식, ④ 환류를 통한 자율규제의 속성을 갖는 사이버네틱(cybernetic) 형식의 네가지 형식에 입각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Kim, 1996; Turner, 1978).

4. 인간관

사회과학의 주된 탐구대상이 사회를 이루는 인간의 행태임을 생각할 때 인간의 행동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전체는 사회과학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두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인간의 행동은 외부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결정론(determinism)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은 자발적 선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의지론(voluntarism)이다. 결정론 중에서도 행위주체인 개인에게 부가되는 도덕적 의무감을 강조하는 입장을 의무론(deontology)이라고 하고, 의지론 중에서 행위주체의 합리적 목적을 강조하여 인간행위를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 선택행위로 보는 입장을 목적론(teleology)이라고 부른다(Etzioni, 1988).

결정론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을 결과하는 외적 조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므로써 설명의 일반성과 법칙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회과학의 과학화에 기여한다. 반면, 인간행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간의 기본적 성향(predisposition)이나 선호에 관한 고

려가 무시됨으로써 설명력이 약해지고 사회과학의 몰가치화를 가속화할 위험에 빠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의지론은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대로 일정한 조건하에서의 인간행동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됨으로써 설명의 일반화에 불리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5. 윤리학적 문제

지금까지 논의한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 인간관의 문제가 사실에 관련한 형이상학적, 과학철학적 이슈라면, 철학의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냐”의 가치판단에 관한 윤리학적 문제이다. 윤리학에서 천착하고 있는 개인적 수준의 주요한 질문들은 ① “인간에게 있어 최고선은 무엇인가,” ②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어느정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등등이고 이러한 문제를 사회와 국가로 확대시켜 논의를 확대한 질문들이 ③ “정부는 그 사회의 개개인의 삶에 어느정도의 권위를 행사하여야 하는가,” ④ “공동체는 소외받은 구성원의 복지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⑤ “전체적인 복지를 증진하는 데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등에 관한 질문이다(글로썬, 1986tr.; 90-114).

6. 논의의 종합

지금까지 사회과학을 연구하면서 직면하게되는 철학적 이슈들을 선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논점들은 본서의 편의상 임의로 추출된 것이며, 존재론-인식론-방법론의 논의가 따로 따로 분리되어 진행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상호간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상의 이슈를 종합하면 주관주의적(subjectivistic) 접근과 객관적(objectivistic) 접근으로 크게 사회과학을 수행하는 입장을 대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Burrell과 Morgan(1979: 3)이 이러한 논점별 입장의 차이를 다음의 표과 같이 요약한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사회과학에는 주관주의적 접

근과 객관주의적 접근이 있으며, 공공가정의 연구에도 위에서 살펴본 철학적 이슈에 따라 주관주의적 접근과 객관주의적 접근이 가능하다. 현재 사회과학 일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증적·행태주의적 영향에 공공가정론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공공가정론의 연구가 대체적으로 객관주의적인 패러다임에 경도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주의적·실증적 접근이 공공가정론의 유일한 최선의 접근방법은 물론 아닐 것이다. 다음 절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철학적 이슈들이 어떻게 공공가정론과 관련하여 연구의 주제를 제공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사회과학의 철학적 성격

주관주의적 접근 (Subjectivistic Approach)		객관주의적 접근 (Objectivistic Approach)	
명목론 (Nominalism)	존재론 (Ontology)	실재론 (Realism)	
반실증주의 (Anti-Positivism)	인식론 (Epistemology)	실증주의 (Positivism)	
의지론 (Voluntarism)	인간의 본성 (Human Nature)	결정론 (Determinism)	
개별/특수적 (Idiographic)	방법론 (Methodology)	일반법칙론 (Nomothetic)	

자료: Burrell and Morgan, 1979: 3.

Ⅲ. 공공가정론의 철학적 이슈

공공가정론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지금까지 논의한 철학적 이슈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과학 철학적 연구주제는 무척 다양하고 포괄적일 것이다. 그중에서 다음에 언급된 질문들은 본고가 임의대로 선별해 본 소수의 이슈들이다.

1. 존재론적 질문: 과학적 연구대상으로서 공공가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은 공공가정을 학문적 탐구대상으로 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존재론적 질문으로서, ① 공공가정의 존재를 선험적인 개념규정에 의거하여 개념적·논리적인 틀에 입각하여 제한적으로 연구할 것인가, 또는 우리 주위의 공공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많은 경험적 현상의 사례들을 먼저 수집하고 이에 따라 귀납적으로 이론을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② 공공가정을 개념화된 하나의 보편자(universal)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공공가정의 원형(Urform) 또는 본질을 사상(捨象)해 나갈 것인가, 또는 공공가정의 개별자(particulars)적 성격을 인정하고 다양한 공공가정의 사례와 특수성을 풍요하게 할 것인가, ③ 공공가정의 본질은 조직 또는 체계로서의 전일적인 전체인가, 혹은 그것을 이루는 인간들의 행위와 상호작용의 합인가, ④ 공공가정을 개체들의 행위의 합으로 파악할 경우에, 그러한 행위는 외재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가, 혹은 개체들의 자유의지와 성향에 의한 것인가 하는 등등의 질문을 포함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공공가정론의 학문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이러한 존재론적 근가정(root assumption)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존재론적 질문에 관해서는 일단 현재 우리 학계의 주도적인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 경험적·실증적 인식의 토대가 되는 답지(答紙)를 일음 제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① 수많은 형태로 존재하는 공공가정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경험적 현상의 사례를 귀납적으로 축적하고, 따라서 ② 보편자로서의 공공가정보다는 개별자로서의 성격이 강조된 공공가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작금의 행태론적 접근에 부합하는 존재론적 응답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전일적(holistic) 전체나 환원적(reductionistic) 개체나 하는 문제는 연구자의 정향과 선택에 따르는 문제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명제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최근 연구의 전반적 전제는 ③ 공공가정의 본질

은 그것을 구성하는 환원적 개체들의 개체들의 합이며, ④ 그 행위는 외재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인식론적 질문: 공공가정을 연구할 수 있는 인식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공공가정 연구의 인식근거로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감각이다. 예컨대, 공공가정을 욕구충족 지향의 경영체라고 파악하고, 공공가정 이용자의 욕구가 어떠한 체계를 이루고 있고, 그러한 욕구의 만족/불만족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했다고 하자. 이때 연구자는 연구대상이 될 공공가정을 적절히 선정하고, 세심하게 고안된 조사설계에 입각하여 설문조사를 실행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가정의 경영과 관련한 실증자료와 관리자와의 면접조사도 병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일련의 과정에는 두가지 전제가 숨어 있다. 그 하나는 연구자가 경험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지식이 진리의 근원이 된다는 인식론적 전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처럼 공공가정을 이루고 있는 개체(이용자나 관리자)들의 의식·태도·행동을 연구함으로써 공공가정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방법론적 전제이다. 지금 예를 든 연구의 방법은 되도록 연구자의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사실에 입각한 자료로써 공공가정을 파악하려는 실증주의적 전통에 입각한 인식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증주의적 인식론은 가족자원관리학계의 8할을 넘는 연구방법의 근거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사변(思辨)적 인식의 근거에 터잡은 비판적 방법도 공공가정을 연구하는 한 방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가정의 존재근거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고 가정하자.

...과거 자본주의가 성숙해가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가정의 기능은 임금노동자를 양육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기능은 가정내의 여성이 전담하였다.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구조가 정보화·유연화·후기산업화하면서 「다수의」 임금노동자보다는 「양질의」 노동자를 필요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가정내에 머물던 여성노동인력을 생산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희여성노동력의 생산적 착취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가정내에서의 여성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기관(institution)의 존재가 절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관중에서 조직적 성격을 가지고 가능하게 된 것이 소위 공공가정이다...

공공가정을 이러한 맥락에서 인식하게 되면 그 설명은 거시구조적이고 비판적인 것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네오마르크시즘이나 페미니즘과 같이 변화지향적인 이론과 접목될 수도 있다. 이처럼 공공가정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경우, 이론의 기능은 주로 공공가정과 관련한 가정과 사회에 대한 허위의식(false consciousness)을 비판하고 적절한 교육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억압받는 인간의 해방(emancipation)을 이룩하는 데 있다.

위에서 예를 든 실증주의적·비판적 방법 이외에도 현상학·해석학적 방법과 같이 설명(erklären)보다는 이해(verstehen)에 초점을 둔 인식방법이나, 기호나 구조에 주목하여 현상을 분석하려는 현대철학적 방법도 흥미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방법론적 질문: 공공가정 연구를 위한 표준과 학적 방법론은 존재하는가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하는 과학철학자들(Hempel, 1965; Nagel, 1961; Rudner, 1966)의 믿음은 사회과학도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적인 방법론적 엄격성을 좇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의 미숙한 사회과학의 방법론은 그것이 단지 탐구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이면 점차 자연과학과 같이 성숙한 이론구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장마다 느낌표를 동원하고 있는 Dicsing(1971: 24)의 설교는 이러한 입장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회개하라! 너희는 진정한 과학자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설명이 아니라 설명개요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자처럼 행동하려하지 말라! 「정책과학」이라는 어귀는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다!

그러나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이러한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표준과학적 방법론의 존재에 관한 믿음에 회의를 표하고 있다. 즉, 여러가지 이유에서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는 다른 독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적인 표준방법론적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공가정론을 연구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연과학에서와 같은 방법론적 엄격성을 견지할 것인가는 논란의 대상이다. 사회과학으로서의 공공가정론의 여러가지 특징, 즉 ① 조직으로서의 공공가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많은 현상들의 법칙적 설명가능성이나 과학적 정상성(normality)의 존재가능성의 의문, ② 후술하는 가치문제와 주관성의 개입문제, ③ 학문적/학자적 역할의 중요성, ④ 관리적 지식을 위한 처방적 측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Kim, 1996: 80-83), 표준과학적 방법을 맹종하기보다는 공공가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사회과학의 특징적 방법론들을 개발하는 데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믿는다. 물론 이러한 시도들은 공공가정론의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완결될 수 있는 간단한 이슈는 아니다. 오히려, 방법론적 독자성의 틀 안에서 「과학화」를 추구하는 모든 사회과학자들의 이룰 수 없는 숙원에 가까운 모두의 노력을 요구하는 주제라고 할 것이다.

4. 윤리학적 질문(1): 공공가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여야 하는가, 또는 그러한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은 어떠하여야 하는가

공공가정이 누구를 위한(Qui bono?) 존재인가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제이다. 특히 재분배적 복지서비스 지향의 공공가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질과 수혜대상의 범위는 반비례하는 특성을 지니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공가정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어느 선까지 부과할 것인가에 관한 해답은 결국은 이러한 윤리학적인 가치판단에 근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가정이 궁극적

으로 추구하여야 하는 이념으로서 상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덕목들, 즉 자유, 평등, 민주, 효율, 형평, 효과, 합리, 수익, 합법, 적절, 대응성 등의 목록 중에서 특정한 공공가정이 어떠한 가치를 어떠한 위계 질서에 의하여 추구할 것인가도 주요한 의문의 하나가 된다. 전통적 가정이 수익, 효율, 합법, 효과성보다는 평등, 적절, 대응성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영리적 부양경영체들은 그 반대의 방향에서 가치를 추구하여 왔으므로, 그 중간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공공가정에 있어서의 가치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많은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가치판단을 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가 맞다는 정오(正誤)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합의(consensus)에 관한 문제이고 이러한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 하는 「절차」의 문제로 귀결된다. 공공가정의 존재의의와 추구가치를 결정하는 절차적 해법으로서 Bentham류의 공리주의적 기준이나, Rawls의 정의론적 기준 등이 주목할만 하다. 또는 정치경제학적인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의 입장에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적정 공공재의 공급수준을 결정하는가에 관한 과정을 살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는 생략하지만,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절차적 합의없이 주장되는 공공가정의 가치판단적인 언명들은 자칫 매우 공허할 수 있다는 점이다.

5. 윤리학적 질문(2): 공공가정이 정당화되고, 학문으로서의 공공가정론이 학문적 독자성을 보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은 일부 윤리학적 질문이자 지식사회학적 질문으로서 현대사회에서 공공가정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정당화되는 논리와 그 학문이 어떻게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가정의 존립근거를 구하는 작업은 현대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이념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

현대에는 기술혁신의 세기임에 분명하다. 눈부시게 진보하는 기술은 생산의 질적·양적 변화를 가능하

게 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개인과 국가공동체의 가치관의 수정을 촉발하였다. 생산기술의 질적 변화는 각 산업부문의 노동력의 수요형태를 변화시켜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증가시켰고, 이는 가정내 구성원들의 역할분담과 상품대체에 관한 태도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또한 기술진보는 의료·위생분야에서도 이루어져 인간의 평균수명을 크게 연장시켰고, 가정내에서의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와 동반하여 노인부양의 사회적 수행수요가 크게 증대하였다. 이러한 양면에서의 변화는 모두 공공가정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이며, 현대사회에서 공공가정의 정당화를 구하는 한 논거를 이룬다.

생산기술의 양적 변화 또한 공공가정의 등장을 촉진하였다. 그 촉진은 생산기술의 진보에 따라 사회구성원 각각의 소득이 증가됨과 아울러, 사회 자체가 이전보다 많은 자원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전자의 경우,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그들이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배분의 선호가 달라지는 동시에 대체할 용의가 있는 가사노동의 범위도 증가시켰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가정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부양을 가능케 하는 여유자원의 축적을 이룸으로써, 사회의 기성질서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보험적 기능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두 방향의 변화 모두가 공공가정의 활성화를 가능케 한 조건을 이루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전제의 변화는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관도 변화시켰다. 예를 들어 가정구성과 역할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가사노동의 사회적 대체,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부양에 관한 태도의 형성 등과 같이 공공가정의 대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고의 전환이 가능해 짐으로써 공공가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특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를 표방함으로써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가정의 존재는 헌법적으로도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복지분배적 기능을 공급하는 공공가정을 논의하게 되면, 지금까지 복지서비스와 관

련한 이론적 탐구에 몰두해 온 사회복지학과 같은 인접학과와 실제적·방법론적으로 차별화되어 독립된 학문분과로서 공공가정론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사회복지학으로부터의 공공가정론의 독자성을 살펴볼 때, 양자는 학문의 지향과 출발점부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학이 국가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는 「평등」이라는 가치척목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실현해 가느냐에 관한 이론적 고찰이라면, 공공가정론은 가정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가정이라는 단위주체를 둘러싼 이론과 관리적 지식의 성장을 지향하는 학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분석의 수준(level of analysis)도 사회복지학은 주로 국가적·범사회적 수준에 있는 반면, 공공가정론은 개인적 또는 조직적 수준에 있다.

학문적 대상영역에서도 양학문이 중첩되는 영역은 서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학은 사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서비스(사회사업)의 3대영역으로 분류되는데(남세진, 1992: 159-188) 이중 공공가정론의 영역과 중첩되는 부분은 사회사업영역의 일부로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한 형태로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공가정론에서 역시 복지서비스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공공가정이 사회사업의 영역과 중첩할 뿐이다. 특히 영리적 부양경영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공공가정을 대상으로 할 때, 이러한 사회복지적 공공가정이 공공가정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감소한다고 하겠다.

두 학문은 대(對)사회적으로 갖는 기능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갖는다. 사회복지의 기능에 관하여 사회복지제도가 오직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보충적」(residual) 개념과 복지서비스가 현대 산업사회에서 정상적인 제일선(第一線)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제도적」(institutional) 개념으로 양분되는데(월렌스키·르보, 1979: 119-121), 현대 사회복지학에서는 복지기능을 제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영모 외, 1992). 반면 공공가정은 가정기능을 지지·보충·대체하는 경영체

로 이해되므로, 제도적이기 보다는 보충적인 개념에 가까운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학의 접근이 「문제」중심의 접근을 기본적 개입의 준거로 하고 있다는 점(최일섭·최성재, 1995)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전술한 사회사업 서비스의 제공은 기본적으로 문제청소년, 문제가정, 문제노인 등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 존립의 출발이며, 따라서 그러한 복지기관들의 주된 목표가 1차적으로 그러한 문제의 해소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실을 최경구는 “잔여적 기형성”이라고 부른다, 최경구, 1996: 229-233) 반면, 공공가정론은 비단 특정한 문제를 가진 주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가정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 기능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고, 따라서 공공가정의 목표 또한 단순한 문제해결이 아니라, 구성원의 욕구, 특히 자아실현과 같은 상위욕구를 실현하는 데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공공가정론은 기존의 사회복지학과는 차별화되는 전혀 새로운 학문적 정향으로서의 독자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IV. 결 론

지금까지 공공가정의 철학적 이슈를 간략히 살펴 보았다. 이러한 논의가 일견 공공가정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더 나은 실천적 지식을 제공하는 데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공가정론의 철학적 제문제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경영학이나 사회복지학과 차별화된, 그러면서도 가정관리학의 실제적·방법론적 외연을 넓힐 수 있는 「독립된 분과학문으로서의 공공가정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행하여야 할 필수적인 작업이라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대의 학문은 매우 상호존재적이어서 다른 학문분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분야는 전무하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공공가정론과 같이 발아기에 있는 학문으로서는

“그것이 독자적인 분과로 독립할 존재의의가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하여 진지한 대답을 하여야 할 숙연한 책무가 있으며, 그러한 책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첫번째 작업이 바로 철학적 논의의 정리인 것이다.

둘째, 향후 공공가정론 연구를 위한 밑그림 또는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현재 공공가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관리」적 지식의 축적에 그 중심이 놓여있다고 보이거니와, 대체적인 교재나 강좌의 명칭 또한 공공가정「관리」론 또는 공공가정「경영」론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하나의 학문분과의 온전한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이론과 철학에 관한 문제의에 천착 또한 병행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본고는 관리적 질문에 직접 대답하기 위한 이론적·철학적 지도를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의 한 표현이다. 따라서 향후 공공가정을 연구하려는 학도가 특정한 연구주제를 탐색할 때 어떤 주제가 어떤 철학적·방법론적·이론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인지하려면 이러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복지화, 가정의 사회화와 사회의 가정화 등 다가올 미래의 물결이 공공가정론에 제기하는 도전과 함의는 매우 크다. 한편으로는 공공가정론의 지식을 공고히 하여 학문적 외연과 내포를 다지는 노력과, 또 한편으로 변화가는 사회적 추세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혁신하면서 지적 성장을 이룩해 가는 학문적 노력은 진지한 탐구의 열의를 서로 덥혀 주고 있는 우리 학문공동체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1) 강신택(1995). 「사회과학연구의 논리」 서울: 박영사.
- 2) 글로썬, 로널드 J.(1986tr). 「철학입문」 이치범(역). 서울: 이론과 실천.
- 3) 김난도(1998). 「공공가정론」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998년 공공가정관리론 workshop 자료.
- 4) 김선희(1997). “공공가정의 인력관리 특성과 조직

- 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pp. 149-158.
- 5) 김영모 · 남세진 · 진변중 공편(1992). 「현대사회복지론」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6) 남세진(1992). 「인간과 복지」 서울: 한울.
 - 7) 송혜림(1994). “가정관리학에서 ‘공공가정론’의 위치와 전개방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1. pp. 181-188.
 - 8) 송혜림(1995). “공공가정의 기본개념과 공공가정론의 연구방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pp. 189-198.
 - 9) 송혜림(1997a). “공공가정의 대상범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pp. 173-184.
 - 10) 송혜림(1997b). “수행활동을 중심으로 한 공공가정의 개념과 경영원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pp. 135-147.
 - 11) 신중섭(1992). 「포퍼와 현대의 과학철학」 서울: 서광사.
 - 12) 안석교(1984). 「현대 사회과학의 방법론」 서울: 한길사.
 - 13) 엥겔, 모리스 S(1992tr.). 이종철 · 나종석(역). 「철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문예출판사.
 - 14) 윌렌스키, H.L. · C.N. 르보. 장인협(역)(1979) 「산업사회와 사회복지」 서울: 대한교과서(주).
 - 15) 이기영 · 문숙재 · 송혜림(역)(1996). 「공공가정경영론」 서울: 학지사.
 - 16) 정위섭(1992). 「철학개설」 서울: 학문사.
 - 17) 조희금(1997a). “공공가정경영 실무자 인증을 위한 예비연구” 「공공가정경영 교육의 실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997년 추계 학술대회자료집, pp. 47-66.
 - 18) 조희금(1997b). “공공가정관리사의 역할 및 제도에 대한 시론적인 고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pp. 119-133.
 - 19) 최경구(1996). “한국사회복지의 구조와 특성” 최경구 편(1996) 「한국사회의 이해」 서울: 일신사, pp. 213-243.
 - 20) 최일섭 · 최성재 공편(1995).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나남.
 - 21) Bernstein, R.J.(1976). *The Restructuring of Social and Political Theory*, (Philadelphia: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22) Burrell, g. and G. Morgan, *Sociological Paradigms and Orgniazaional Analysis*, London: Heineman.
 - 23) Diesing, P.(1971). *Patterns of discovery in the Social Sciences*, (Chicago: Atherton).
 - 24) Etzioni, A.(1988). *The Moral Dimension: Toward a New Economics* (New York: Free Press).
 - 25) Fay, B.(1987). *Critical social Science: Liberation and Its Limit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26) Hempel, C.G.(1965).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New York: Free Press).
 - 27) Kim, Rando(1996). “An Essay on Isomorphic and Idiosyncratic Characteristics of Social and Natural Science,”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11, pp. 73-87.
 - 28) Nagel, E.(1961). *The Structure of Scienc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29) Rudner, R.S.(1966).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30) Turner, J.H.(1978).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2nd ed.), Homewood: Dorsey.